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소장

제주도와 해군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이 작년 8월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제19회 함상토론회 제주 개최 등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가 바뀔수록 제주도와 해군이 작년 8월에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서' 상의 주요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적인 사안을 뛰어넘어 좀 더 큰 틀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할 적기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주도에 군병원을 건립하...
는 것이다. 군병원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지만 유독 제주에만 없다. 제주도의 민간 의료지원 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 그렇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기존 해병·특전부대 등을 포함하여 전개 부대 규모도 커졌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도내 의료 지원 시설 및 인력 보강이 절실함을 느낀다. 군병원 건립 시 현지 군부대의료지원 및 육지 환자의 요양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로 도내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시 군병원 시설 및 관련된 의료 인력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약속했던 지역발전사업 중에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해양사·정책연구소(가칭)'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센터를 통해 국민(도민)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이순신, 장보고 등 해양 선각자 및 해양활동 연구와 교육, 군부대와 연계한 해양 체험 등-은 물론, 해양 환경 및 해양안보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시 등이 가능해 정부의 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일 것으로 확신한다.

주도-해군간의 상생·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우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나 제주지방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해군과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과의 폭넓은 교류·협력은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설

거리두기 연장, '최종 선택'되게 힘 모아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의료 대응 가능에다 3단계 격상 시 서민경제의 큰 충격을 감안해 현 수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사회는 2단계도 지역사정에 막대한 타격을 겪고, 연말연시 모임 금지로 불만도 큰데 연장조치로 더 인내하자는 당국 방침에 대해 '실망스러'하는 분위기다.

고, 추가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방역당국 '의지' 못지않게 모두의 동참을 끌어내는 일이다. 현재도 자영업자들의 아우성, 도민들의 불만·불안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2주 더 함께 하자는 방침을 전면 수용으로 이끌기 쉽지 않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공감되면서도 '한숨'은 늘어만 가는 현실 때문이다. 오히려 일찍 거리두기 3단계 격상조치 시행으로 서민경제 고통을 조기 마감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불만도 일부지만 제기되는 형국이다.

열린마당

어르신 기초연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고 경 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21만원이 오르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이 오른다. 그러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작년에도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 중 5만 6289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뉴스-in

2022년 지방선거 시계 '짜깁 깎깎'

선거구획정위원회 추천 마무리

○...2022년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월중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기관·단체별 추천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1월 중 최종 위원을 확정할 계획.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의회의 조기 가동 요구 속 당초 6월 구성·운영계획에서 앞당겨진 것으로, 선거구획정(안)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관용차 대신 대중교통 출·퇴근

○...강승표 신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이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어 눈길. 지난 1일자로 취임한 강 본부장은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버스를 이용해 출근한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관용차를 이용해 업무를 본 후 일과후에는 다시 버스를 이용해 퇴근.

제주농협 한 직원은 "강 본부장은 이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고 언급.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

○...서귀포시가 2020년 중앙단위 공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공모에서 안전총괄과가 최우수부서, 경제일자리과·해양수산과가 우수부서로 평가사업에서 서부보건소가 최우수부서, 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는 우수부서로 선정되며 포상금 등을 수상.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앙단위 공모·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비정상 행정체제,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지만 지방 자치는 그리 달라진게 없다. 아직도 자치권과 재정권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그만큼 멀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제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추

진사항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을 꼽았다. 그리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괴한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제주지방자치에 영동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그만큼 멀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제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추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나주김급 성우(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4일
아들 김근수 며느리 이연매
근용 성미정
근선 안선녀
근석 강경숙
사위 고용환
딸 김해자 김중완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광케이블 설비공사
▶ 관공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석형(향년 8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4일
부인 김선숙
아들 이기성 며느리 김이선
기현 김은정
기호
기봉 홍정숙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